

“우리의 죄가 여태 큼니다”



우리는 감사의 절기를 맞았지만, 우리의 감사가 누군가의 눈물을 가리는 소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오늘을 국가 애도의 날로 기억하며, 탐욕 속에서 사라진 문명과 생명을 떠올립니다. 그들의 고통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차별과 무관심이라는 이름으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2025년 세계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종전을 반기지만, 이는 정의로운 평화가 아니라 강요된 포기의 결과라는 점에서 슬픔을 안깁니다. 점령지 주민들은 여전히 억압 속에 남겨져 있습니다. 정의가 바로 서지 않은 평화는 또 다른 폭력입니다.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마음은 더욱 무겁습니다. 인구 감소로 이주민 노동자들이 농촌과 가정 돌봄까지 감당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이웃이 아닌 ‘노동력’으로만 대했습니다. 그들의 땀은 귀하게 여기면서도 잠자리와 의료, 인간다운 삶에 대한 관심은 외면했습니다. 배달·건설·택배 노동자들의 죽음도 사고가 아닌 구조적 인권 문제입니다.

기술 발전 속에 뒤쳐진 어르신들은 기계 앞에서 자존감을 잃고, 청년들은 경쟁과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고립과 절망으로 내몰립니다.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외칠 때 사회는 그들의 절박함보다 불편함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존재를 소음으로 취급하는 사회, 이것이 오늘의 인권 현실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청교도들이 신앙을 말하면서도 원주민을 학살했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반복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풍요로운 추수감사절 앞에서 우리의 영혼은 부끄럽습니다. 원주민을 억압했던 과오, 전쟁 속 타인의 고통에 무감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왜곡된 정의와 힘의 논리가 사라지고 약자의 눈물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주 노동자들을 국적과 돈의 기준으로 평가했던 오만함을 용서하소서. 기술에 적응하지 못해 작아지는 어르신들, 실패를 두려워하며 방 안에서 울고 있는 청년들, 거리에서 “살고 싶다”고 외치는 장애인들의 절규를 외면한 죄를 고백합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무시받을 이유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영혼을 귀히 여기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나만의 울타리에 갇힌 이기심을 버리고, 모든 사람이 존엄을 보장받는 사회를 위해 우리가 먼저 깨어 행동하게 하소서.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모든 이에게 실현되기까지 우리의 움직임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송소리 높은뜻푸른교회 목사(제3회 평화나무 주최 아메리카 원주민 학살 참회 기도회 중)

2025년 11월 30일
통권 13권 48호
대림절 1주일

2025년 벙커1교회 표어
κόσμος 코스모스
세상 질서 조화(요한 3:16)

다만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서로 위하는 마음 개울같이 넘쳐흐르게 하여라.

벙커1교회 주제성구 아모스 5:24

섬기는 사람들

목사 김용민 · 장로 양미혜
전도사 오광석 최새론 이용수


교회 위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화랑로546번길 16-12)

010-9341-2012

bunker1churchweb@gmail.com

bunker1.me

 **누룩TV**

벙커1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북노회 소속으로 하늘의 뜻이 땅에서 펼쳐지도록 애쓰고 있는 개혁적 개신교회입니다.

창립기념일 2012년 6월 10일



새 교우 등록을 원하는 분은 좌측 QR코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응답하였다, ‘오오, 얼마나 나의 령혼이 주님을 찬양하는가.

얼마나 내 령혼이 나의 구세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가!”

누가 전하는 반가운 소식 1:46-47 (북한 성경)

주일에배순서

찬양

인도 영광석 전도사
보컬 이난주 집사·김자경 교우·이혜정 집사·이진영 집사·김성윤 집사·김경순 집사
연주 정진호 집사·박이정 교우·이용수 전도사·장옥상 집사·이종원 집사

사회 이종원 집사

징울림 Slet prayer *		정방남 원로
신앙고백 Creed *	병κε교회 신앙고백	다함께
찬송 Hymn	114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다함께
기도 Prayer		정금자 권사
독서 Bible reading	마태복음 2:1~6	사회자
설교 Sermon	임마누엘	김용민 목사
광고 News		사회자
파송곡 Closing Song *	교회	다함께
축도 Benediction *		김용민 목사

■ 병κε교회 신앙고백

모든 생명체 속에 실존하시며 역사하시는 영원하고 이상의 표상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을 늘 새롭게 창조하시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나시어, 억압과 고통 속에 있는 민중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으며, 모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모범이 되셨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장사 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의 길을 보여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교제를 믿으며, 남과 북이 하나 됨을 믿으며, 전 인류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 됨을 믿습니다. 죄의 용서와 존재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 성경 마태복음 2장

- 1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헬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 2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 3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 4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 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 보았다.
- 5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헬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 6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헬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 찬송 기록하신 하나님 주께 (Give Thanks)

거룩하신 하나님 - 주께 감사 드리세 - 날의 맘과 뜻 다 해 - 주를 사랑 합니다 -

위해 - - 이 땅에 오신 - 독생자 - 예수 나 수 내

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 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 - 신나의 주 감 - 사 내 사 감사 -

헨리 스미스는 신학교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시력을 잃어가는 병으로 결국 실명 상태에 놓였다. 가장 약하고 가난한 시기에 고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 “가난하게 되심으로 너희를 부요하게 하심”이 깊이 다가왔고, 그 믿음 고백이 곡의 핵심 가사가 되었다. 작은 교회에서 처음 불린 이 찬양은 우연히 미군 장교를 통해 해외로 퍼졌고, 이후 돈 모엔의 음반에 실리며 전 세계적인 찬양이 되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곡 자체가 된 셈이다.

■ 오늘 설교 요약

마태복음의 성탄 이야기는 포근한 이미지와 달리 두려움과 제국의 폭력 속에서 시작된다. 예수의 탄생 소식에 헤롯과 예루살렘은 불안에 휩싸였는데, 이는 새로운 왕의 등장이 기존 권력 체제에 대한 도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예수를 찾아온

동방 박사는 로마 제국 아래 억눌린 약소민족 출신의 지식인들로, 그들의 경배는 약자들이 서로 연대하여 제국의 질서에 맞서는 희망의 상징이 된다. 하나님은 궁궐이 아닌 가난한 민중의 집에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심으로, 권력이 아닌 사랑과 정의, 강자의 질서가 아닌 민중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분임을 드러내신다.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이 약자와 소외된 이들의 편에 서신다는 선언이며, 그 연대를 통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약속이다. 성탄은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정의를 선택하며, 낮은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날임을 일깨운다.

모든 것이 은혜...한 없는 은혜

양미혜 장로 임직식 현장



임직 인수(좌) 및 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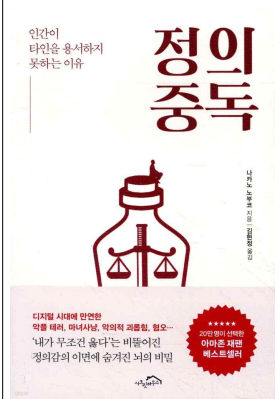
전임 여장로회장 강신옥 장로와의 포옹(좌) 및 김묘성 방송인의 축가



양미혜 장로 임직예배가 23일 한신대 서울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있었습니다. 설교자로 나선 증경 총회장인 육순중 성북교회 목사는 페이스북에서 “사랑만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믿음으로 뭉친 교회”라며 찬사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감독사와 책읽기

나카노 노부코의 '정의중독'



뇌 과학자, 인지 과학자이며 의과대학 교수인 나카노 노부코의 '정의중독'은 '도덕적 확산의 함정'에서 허우적대는 현대 사회를 제대로 해부한 책이라 하겠습니다. 누구나 정의감은 있고 본래 선한 동기에서

출발하지요. 그러나 어느 순간 '옳다'는 감정이 강력한 보상을 주며 중독처럼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극단주의자가 자기 주장을 유튜브로 펼칠 때 슈퍼댓글이 쏟아진다면, 혹은 이로 인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이 극대화된다면, 더 크고 더 강한 자극을 갈망하게 되지요. 결국 '정의'라는 이름으로 타인을 판단·정죄하며 관계를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예수께서 가장 날카롭게 지적하신 바리새인의 율법주의적 태도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책에서 제시하는 정의중독의 특징은 흑백논리, 무오류 확산, 도덕적 우월감은 신앙 안에서도 흔히 발견됩니다. 기도, 성경 지식, 신앙 연륜이 자칫 '영적 우월감'으로 전환될 때, 우리는 자신을 의롭게 여기기 위해 누군가를 틀린 사람으로 규정하고 싶어집니다. 저자는 이러한 심리를 깊이 파헤치며, 우리가 분노를 통해 인정받고 쾌감을 얻는 구조 자체를 스스로 성찰하라고 촉구하지요. 이는 곧 예수께서 “공회는 원하고 제사는 원하지 않는다”(마태 9:13) 하신 말씀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옳음의 무기화'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마음'입니다.

'정의중독'이 기독교인에게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이 책이 율법주의의 위험을 심리학적인 언어로 풀어내며 은혜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 가야 한다는 방향을 자연스럽게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독자는 “나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의를 과시하고 싶은가?”, “내 말이 사람을 살리는가, 상처를 남기는가?”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된다. 책은 정의와 진리를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옳음'보다 '사람', '판단'보다 '공회', '확신'보다 '겸손'을 선택할 때 비로소 신앙은 복음의 빛을 회복한다고 가르칩니다.

결국 '정의중독'은 기독교인에게 은혜 없는 정의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진실을 일깨워주는 책입니다. 자기 의에 매여 타인을 재단하는 신앙에서 벗어나, 예수께서 보여주신 온유와 긍휼, 복잡성을 품는 사랑으로 나아가도록 초대한다. 자신의 신앙 태도를 점검하고 싶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깊이 추천할 만한 책입니다.

주일학교 오전 11시 🏠

벙커업 (어린이) 1층 우리지금만나눔 열왕기하 25:8~17 성령의 열매와 재건축 오광석 전도사	벙커틴 (청소년) 메디피아공간대어 느헤미야서 5:14~19 함께 고동받는 힘 최새론 전도사
---	--

수요일예배 수 오후 7시 📺

찬양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본문	욥기 25장
설교	빌닷의 세 번째 말 김용민 목사

새벽성서읽기 월~금 오전 5시 📺

월	출애굽기 13장 만이를 봉헌하다
화	출애굽기 14장 홍해를 건너다
수	사무엘상 11장 싸워야 할 때 싸우는 자
목	마태복음 6:25~34 걱정은 주님께 맡기라
금	마태복음 7:1~7 네 눈에 들보를 보라

(월·화) 김용민 목사 (수) 최새론 전도사
(목·금) 오광석 전도사

유튜브 콘텐츠 제작 일꾼

주일 박만호 PD · 수요일 김시현 PD ·
새벽성서읽기 박종욱 집사

벙커1교회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방법

지하철 3호선 삼송역 ③번 출구

→ 도보 1.9km

마을버스 삼송역 ③번

→ 075A탑승 (DMC역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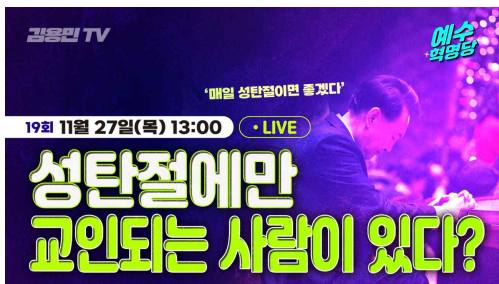
웅현마을사거리 하차

시내버스 1·4호선 서울역③번

3호선·GTX A 연신내③번

→ 703탑승 (탄현역 방향)

→ 동산고등학교 하차



우리가 어려서부터 경험해 온 명절처럼, 절기는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삶의 리듬을 만들어 주죠. 특히 교회 절기는 예수의 생애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따라 믿음과 삶을 잇는 중요한 흐름입니다.

벙커1교회 계좌

헌금 신한은행 100-033-864027
특수목적 신한은행 100-035-696724

교회소식

주일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과 새 신자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상훈 A(시주)님과 정성원(우미) 집사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벙커1교회 추수감사주일 개정을 위한 투표

추수감사주일을 매년 11월 셋째주에서 다른 주일로 변경 결정하는 투표입니다. 다음 중 하나를 골라 ☑️ 해주세요.

도움이 없어요 투표

기호	변경하고자 하는 날	표기
1	추석연휴 전 주일 또는 겹치는 연휴 주간	
2	추석연휴 후 다음 주간	
3	9월 마지막 주일	
4	10월 첫째주일	
5	10월 둘째주일	
6	11월 첫째주일	
7	현행 11월 셋째주일	
8	11월 마지막 주일	

투표일 2025. 11. 30 | 시범처 한국기독교장로회 벙커1교회

오늘 공동의회 오늘 예배 직후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①'카라반 구입 관련 의결' ②'추수감사주일 변경'(좌측 투표용지 참고) 등을 결정합니다. 모든 공동의회 회원(본교회 등록 세례교인)의 참석을 바라며, 비회원 교우들의 참관도 환영합니다.

금주 금~토요일 새해 운영위원회의 새해 운영위원회 회의가 5~6일 강원도 양양에서 있습니다. 출발 일

정은 참석자들에게 개별 공지하겠습니다.

연말 일정

- 12. 7 성탄절 연합성가대 연습(상계동 열림교회)
- 12. 24 수요일예배 겸 성탄절 전야 모임
- 12. 25 (오전 예배 없음) 오후 연합성가대 칸타타
- 12. 31 새해 축복 기도(10시) 및 송구영신예배(11시)

월례 운영위원회의 11월 운영위원회의가 1시에 예배당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명 민에스터 장르

헌물 신비롬 목사 부친 (사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성명 "내란재판부를 즉각 설치하라" 자 내란을 사법부가 앞장서 은폐하고 왜곡하려는 작금의 현실 앞에서 대한민국 시민들은 지금 깊은 피로와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내란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뒤흔드는 중차대한 범죄이기에 법에 따라 처벌하고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은 시민의 힘으로 세워낸 새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의무이다. 우리는 정의와 평화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란 세력의 단죄와 사법 정의의 회복, 그리고 민주주의의 재건을 위해 끝까지 행동할 것이며, 시민사회와 함께 이 사태가 바로잡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책임을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정의와 평화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란 세력의 단죄와 사법 정의의 회복, 그리고 민주주의의 재건을 위해 끝까지 행동할 것이며, 시민사회와 함께 이 사태가 바로잡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책임을 요구할 것이다.

신한은행 100-033-864027 **벙커1교회**

11월 교회 십일조 인원연대	11월 안내 2여교우회	지난주 현금액 5,504,000원
--------------------	-----------------	-----------------------